Credit Weekly

| 크레딧 | 조수희 | shcho@ls-sec.co.kr

국내 크레딧 동향(우량물 캐리 매력, 롯데카드 이슈체크)

AA급 여전채·회사채 우량물 중심의 캐리 확보 전략 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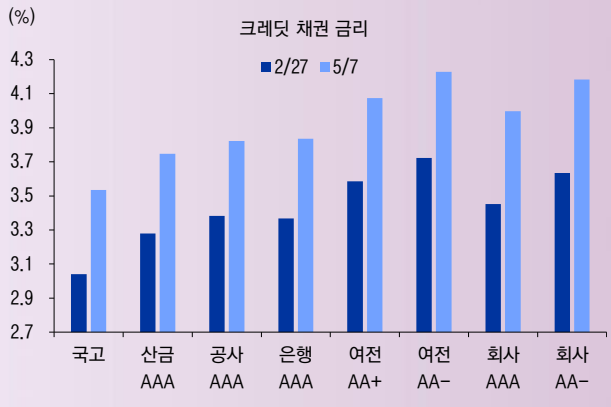
최근 국내 크레딧 시장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매크로 지표 변동성 축소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. 다만, 물가 및 기준금리 인상 관련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3년물 기준 3.5% 수준의 금리 레벨을 형성하고 있어, 크레딧채권도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. 이란 전쟁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며 4월 이후 공사채·은행채 등 초우량물은 신용스프레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, AA-급 여전채 및 회사채는 여전히 상대적인 캐리 매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. AA급 여전채 및 회사채 우량물 중심의 선별 매수를 통한 캐리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.

롯데카드 제재 관련 단기 경계감 존재하나,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

금융당국은 지난 4/30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4.5개월 및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통보했으며, 해당 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 금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수급 및 센티먼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사례와 현재 신평사 스탠스(관련 모니터링 코멘트 공시 및 No Rating Action) 등을 감안할 때, 이로 인한 즉각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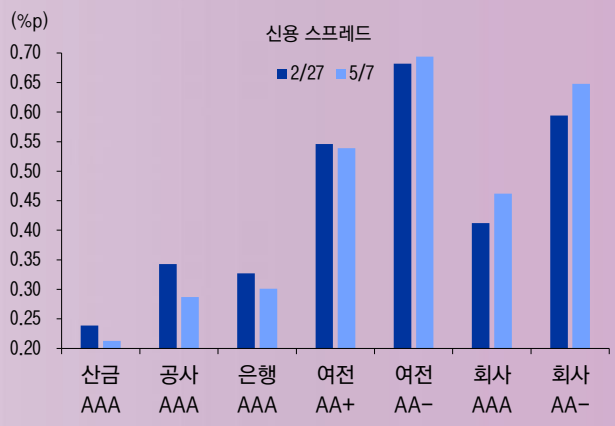
또한, 롯데카드는 과거 지배구조 변경 과정(2019년)에서 AA-로 등급이 하향조정된 바 있으나, ①7대 전업카드사로서 과점적 시장 구조내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, ②높은 진입장벽과 사업안정성을 기반으로 캐피탈사 대비 우위의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(캐피탈사 상단 등급 AA-) 등을 고려할 때,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등급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.

그림1 **2 월 말(전쟁 직전) 대비 크레딧 금리 레벨 전반적 상승**



자료: 인포맥스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**초우량물 대비 여전·회사채 우량 크레딧물의 캐리 매력 부각**



자료: 인포맥스, LS증권 리서치센터

표1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진행 경과

구분	내용
2025 년 8 월	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(8 월 14 일~27 일) 회사 내부 점검 과정에서 침해 흔적 인지 (8 월 26 일)
2025 년 9 월	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금융당국에 공식 신고 (9 월 1 일) 금융감독원·금융보안원 합동 현장검사 착수 (9 월 2 일~) 대국민 사과 및 피해 규모 공식 발표 (9 월 18 일)
2026 년 3 월	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동사에 과징금 부과 (과징금 96.2 억원, 과태료 480 만원)
2026 년 4 월	금융당국,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과징금 50 억원 및 여전법상 영업정지(4.5 개월)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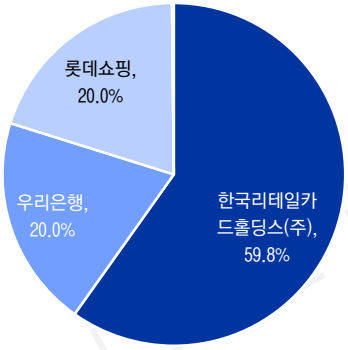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신용평가 재인용, LS증권 리서치센터

표2 2014 년 1 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

	KB 국민카드	롯데카드	NH 농협카드	합계
13.9 월 카드수	1,168 만개	886 만개	668 만개	2,702 만개
카드해지	97 만건	51 만건	80 만건	228 만건
카드 해지율	8.3%	5.9%	12.0%	8.4%
시장지배력(관리금융자산 규모, %)				
2013.12	14.2	7.6		
2014.12	14.0	7.6		
2015.12	14.5	8.2		
영업수익(조원)				
2013.12	3.0	1.6		
2014.12	2.8	1.6		
2015.12	2.9	1.6		

자료: 한국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롯데카드 지배구조 (25.12 월 기준)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표3 롯데카드 연혁

연도	내용
1989 년	동양카드㈜로 설립
2002 년	롯데그룹 편입
2014.1 월	카드 3 사(롯데, KB, NH) 개인정보 유출사태 (제재: 영업정지 3 개월)
2019.10 월	MBK 파트너스·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지분 79.83% 인수 (장기신용등급 조정: AA → AA-)
2025.8 월	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조수희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